



간추린 청렴 소식

[1] 통합사무감사 계속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5년 통합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0월 중 제주지검(10. 5. ~ 10. 8.) 및 인천지검(10. 12. ~ 10. 16.)에 대한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대구지검(10. 26. ~ 10. 30.)에 대한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하반기 청렴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5. 9. 21.부터 9. 23.까지 (2박 3일) 법무연수원에서 일선청 청렴업무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청렴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워크숍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각 청의 우수한 청렴 정책을 소개하고, 분임토의 등을 통해 청렴 업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 수원지검 '공렴 아카데미' 참석 행사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 본청 및 관내지청 신규직원 (임용 1년 미만)들은 9. 8.(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실학박물관의 '공렴(公廉, 공정과 청렴) 아카데미'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막 공직을 시작한 신규 직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배우고, 향후 자신들에게 펼쳐질 공직의 길에서 지켜 나가야 할 원칙과 철학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마음을 지켜 청렴한 공무원이 되길 응원할게요~ 파이팅!!



청렴! 포커스 Focus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클린콜(Clean Call)』 전화 받아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00검찰청 클린콜센터입니다. 선생님께서 검찰청에서 민원업무를...”

“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클린콜이란 검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대검 및 5개 고검에 클린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클린콜과 같은 제도 등을 통해 민원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클린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면, 민원인들이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여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설문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클린콜 전화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니 안심하시고,

검찰에 대해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세 값이 치솟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전세 값에 돈을 더 보태 차라리 집을 사자고 마음먹고 집을 알아본 공무원 A 씨, 위치, 학군, 편의성 모든 게 딱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는데 파는 사람과 공인중개사 측에서 “다운계약서 쓰면 양도소득세 금액이 낮아져서 몇 천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다운계약서 안 쓰면 안 팔거예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라고 합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아볼까? 이거 못 사면 또 언제 이런 집을 구하겠어!!”

“아니야 그래도 양심을 지켜야지, 다운계약서는 국가를 속이는 일이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팔 때 내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만약 여러분이 A씨라면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나요? 어떤 주장이 마음에 와 닿는지요? 그리고 실제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양심을 두드리는 유희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 있게 “이건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가지고 계신가요?

-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한 검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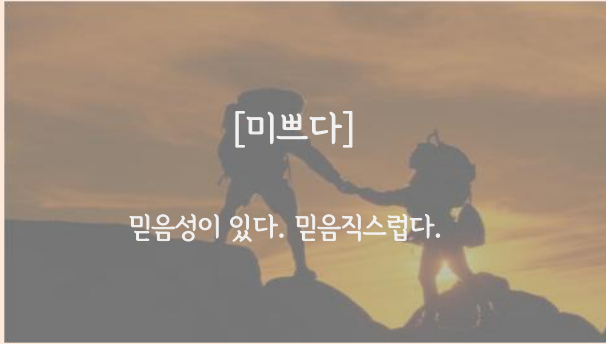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미쁘다' 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10월 9일은 아름다운 우리말인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이었습니다. 10월이 되면 한글과 관련된 이벤트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 지기도 하는데, 이에 Monthly청렴에서도 아름다운 우리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쁘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알고 계셨나요? 언뜻 듣기엔 “믿다”와 어감이 비슷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쁘다”는 이와 반대로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스럽다” 라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단어를 보니,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모습이 청렴의 모습과도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청렴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신뢰', '믿음' 이라는 가치가 너무 쉽게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알고 널리 쓰여야 할 아름다운 우리말, 하지만 아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적어 안타까운 우리말 '미쁘다'

예쁘다 길 생겼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멋지다 지적이다

이젠 이렇게 많은 칭찬의 말 중에 '미쁘다'도 포함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 말을 자주 애용해 보세요. 이 말을 쓰실 때마다 믿음과 신뢰가 이 말을 타고 퍼져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검찰도 '참 미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쭉~욱 노력하겠습니다 ♡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에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전라좌수사 성곽이 관아의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려고 하자 당시 발포만호로 재직 중이던 ○○○이 “오동나무도 관아의 것이다”라며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직자로서 강직함을 보여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이순신 ② 을지문덕 ③ 강감찬

※ 힌트 : Monthly청렴 9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자 **10명과**
다수 응모 청에서 2명, 외부 1명을 추가로 추첨하여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 2015. 10. 29.까지

★응모방법 : clhana2104@spo.go.kr

→ 정답과 함께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9월 퀴즈 정답은 ②청렴현장점검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추첨으로 10명과 응모자가 많은 청과 외부에서 추가로 총 3명을 더 추첨하여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송부하였습니다~

축!
당첨

김수린(춘천), 나용봉(정읍), 남소영(청주), 박경련(영동)
방길환(남원), 배주원(대전), 오현욱(제주), 이지원(대구)
이지선(의정부), 장현숙(해남), 전명진(광주)
김현재(외부), 성찬우(외부)

W words 단어로 보는 청렴상식

[부패인식지수(CPI)]

국제사회의 부패 추방을 목표로 설립된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Π,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17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란 공공부문과 정치부분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수는 국가경쟁력보고서, 갤럽 설문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총 55점을 받아 43위(OECD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바른 검찰, 당당한 검찰, 겸허한 검찰